

월요광장

미래는 예언대로 오지 않는다



임동택
미네르바 코칭앤컨설팅 대표
전 광주대 경영학과 교수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보면서 AI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제미나이와 대화를 나누고,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만들고, 런웨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인공신경망 연구로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트먼저 구글을 떠나며 AI가 초래할 수도 있는 디스토피아를 경고했지만, AI는 이미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확장해 주는 도구로 우리의 전반적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20세기의 르네상스인'으로 평가받는 제이콥 브로노우스키는 "우리 주변에서 기고, 날고, 땅속을 파고, 해엄을 치는 물 동물을 가운데서 인간만이 자기 환경에 갇혀 있지 않은 유일한 존재"라고 했다. 인간이 여러 세대를 거쳐오면서 일련의 발명을 통해 자기 환경을 개조해온 것은 다른 유형의 진화, 즉 생물학적인 진화가 아니라 문화적 진화라는 것이다.

브로노우스키의 관점에서 본다면 AI는 문화적 진화의 산물이다. 현대인의 뇌는 용량, 신경 전달 속도,에너지 효율에서 수십만 년 전 인간과 거의 다르지 않다. 그 이유는 뇌가 더 커지면 출산이 어려워지고 생존이 불리해지며, 유지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존 인류는 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능을 외부화 했으며 그 산물이 AI다.

수필의 향기

2월의 '마음'



이종섭
소설가

2월에는 겨울 숲속에서 아직도 정절을 지키고 있는 빨간 맹감이 생각난다. 숲속은 나무들의 움트는 소리로 익새처럼 서걱댄다. 숲속을 벗어난 바람은 2월의 들판을 기우거린다. 아직 색바랜 풀들이 여전한 밭 언덕에 아까시나무 줄기가 꽂듯하다. 물줄기를 끌어올리려는 모습이 푸른 힐을 역력하다. 물이 고인 보(洑)에 서면 수초 밑에서 물을 쉬는 미끄러지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기다리는 희망이 수포가 되어 방긋, 방긋, 물위로 떠 오른다. 강둑에 서면 저절로 몸을 뒤집는 강물이 유유히 세 길을 흘러 간다. 봄 바다의 바린내가 꽃향기보다 강하다.

지금은 거의 볼 수 없는 2월의 풍경에는 물결치는 보리밭이 있었다. 보리밭 한 가운데에는 늘 뒷동이 누워 있고, 그곳에 누우면 헛볕이 따스했다. 이맘때에는 할미꽃이 줄기를 세우며 봄 맞을 준비를 벌써 끝낸 뒤였다. 뒷동 위에는 장끼가 가슴을 활짝 벌린 채 서 있었다. 겨우내 바짝 굽주린 장끼는 봄을 재촉하는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이번 '고향 말로 쓰는 편지 마음'은 제주도, 전라남북

기고



이광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3.9kg으로 나타났다. 1995년(106.5kg)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장기간 지속된 쌀 소비 감소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단순히 '쌀을 더 먹자'는 구호만으로는 이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이제 쌀 소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전환의 출발점은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밥 문화에 있다. 최근 직장 문화는 '저녁이 있는 삶'을 지향하며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직장인들은 운동 등 취미 활동과 자기계발 시간, 즉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분명히 늘어났다. 이에 비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기대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

저녁보다 오히려 하루를 함께 시작하는 아침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마주 앉아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러한 아침의 의미를 되짚을 때 아침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역시 달라져야 한다.

첫째, 아침밥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공유하는 소

AI는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언어, 논리, 예술, 과학이라는 '문화적 유전자'를 한데 모아 압축해 놓은 거대한 지적 결정체다. AI는 인류가 수행해 온 문화적 진화의 가장 세련되고 집약적인 결과물이 분명하며 인간의 뇌 밖에 존재하는 '외부화된 인류 공동의 뇌'다. 즉 AI는 인지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지능을 도구화한 것으로 인간이 자신의 환경을 유리하게 개조하기 위해 발명한 문화적 무기다.

하지만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져서 스스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하고, 어떤 선택이 적지인지 말하며, 인간을 배제한 채 자기 의지대로 결정하여 한다면 어떻게 될까?

AI의 아버지라 불리는 힌트먼이 두려워한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부모를 통해 태어난 자식이 부모의 생물학적·문화적 속도를 완전히 추월하여 더 이상 부모의 가치 체계를 따르지 않게 되는 순간이다.

만일 AI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을 기만하거나 조종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면 인류는 더 이상 AI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지능의 우위를 점한 AI가 인류의 가치관이나 생존보다 자신의 효율성과 목표를 우선시하게 되는 순간, 인류는 자신이 만든 창조물에 의해 주도권을 침탈당한 채 존재론적 위협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최후 개입권'을 갖고 있는 한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최후 개입권이란 어떤 자동화된 판단이나 시스템의 결정이 실행 중이더라도 오류가 예상되면 이를 멈추고, 되돌리고,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것은 '비상 중지 버튼' 같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되돌릴 수 있고, 개인의 존엄이나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며, 실패 비용을 시스템이 아닌 인간이 감당

해야 하는 영역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결정해야 한다는 정신적 신념이다.

그럼에도 요즘 유튜브에는 AGI(범용 인공지능)와 고속령 피지컬 AI의 출현이 가까워졌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인간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등 공포 마케팅에 가까운 예언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AI가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추론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점에서 AI가 가져올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작동 원리도 모른 채 결과만 보고 '곧 인간을 넘어설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적 주장보다 상상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

더욱이 물리적 세계는 디지털 세상과 달리 변수가 무한하다. '피지컬'이 필요한 영역에서 인간 수준의 유연성을 갖춘 로봇을 경제성 있게 보급하는 것은 예측보다 훨씬 더 오르기 어려운 산이 될 수 있다.

거기에서 미래는 과학자의 예측대로 흘러가는 결정론적 결과물이 아니다. 예컨대,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했던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원자폭탄의 발명이 인류의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인류는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라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핵기술을 통제했다. 인류는 핵을 '우기'가 아닌 '에너지'와 '의학'의 영역으로 뮤어두는 선택을 통해 지난 80년간 대규모 핵전쟁 없이 생존해온 것이다. AI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AI에 입도되지 않는 '비판적 리터러시'를 갖추고, AI의 생각과 판단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는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한 후에 '최후 개입권'을 행사한다면 AI는 파괴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 것이다.

아뿔싸, 뭔가 깊은 울림이 없고 멋진 느낌이었다. 그때 뒷동에서 친구와 장끼가 함께 나에게 날갯짓하는 풍경이 연상되었다.

장끼는 잡으려 다닌 어린 시절이 있었다. 장끼는 꼭 밭 한가운데 뒷동에서 울었다. 뒷동은 야산의 줄기가 불룩 튀어나온 명당자리였다. 멀리서도 뒷동 위에서 있는 장끼가 눈에 띄었다. 장끼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야산에서 밭고랑을 타고 내려왔다가 저녁노을 질 때쯤에 다시 산으로 돌아갔다. 황금 가슬털이 예쁜 장끼를 잡아다가 집에서 키우고 싶던 마음이 늘 간절했다.

뒷동의 장끼는 아름다웠다. 가슴 좌우로 알록달록한 개나리색 털이 바람에 흘날렸다. 긴 목 윗부분에는 한 여름 별판의 진한 청록색이, 머리 부분에는 진한 흑색 털이 빛을 더했다. 눈 주위 벼슬이 또록또록, 붉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장끼 목을 두르고 있는 흰색 털이었다. 마치 영험한 산신령이 장끼 '우리 것'이라는 표시로 하얀 모시 베를 감아 놓은 듯 선명했다.

이런 어릴 적 선망의 마음을 담아 편지글을 썼다. 장끼는 어찌먼저 첫사랑의 소녀로 이어졌다. 고향 말로 쓴 책 '마음'을 통해 여기 첫사랑은 잘 있다고 전하고 싶었다. 오래 전에 죽은 마을 여자아이도 어른거렸다. 산 자들은 어찌죽은 자들에 대한 부채 같은 것이 숨어 있었다. 문득, 아니나 다를까 사람에게 쓰는 편지글은 너무 평범했다. 미을 뒷산을 서식처로 삼은 장끼에게 대상을 바꿨다. 웬지 대화가 불편했다. 다시 대상을 1980년 5월의 풍파 속에 훨씬 빨망동에 있는 친구로 바꿨다. 특히 죽어서 사감(死甲)을 맞은 친구를 생각하자 편지글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원고를 마치려 했는데

를 '의무'나 '운동'으로만 접근하지 않는 것이다. 아침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쌀을 소비하고 그 과정에서 가족 간 소통과 건강을 함께 챙기는 문화가 정착될 때, 쌀 소비를 위해 억지로 만드는 목표가 아니라 가족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생활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농심 천심(農心天心) 운동'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 식탁은 농심천심의 또 다른 실천 방식이다. 아침밥을 함께 먹는 일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능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능업의 미래를 위해 공감하는 가장 생활 밑작업 실천이다. 식탁 위의 밥 한 그릇에는 능업·농촌의 가치가 담겨 있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곧 능업을 지키는 힘이 된다.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침밥을 먹자'는 캠페인이 아니라 쌀 소비를 바라보는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농심천심의 가치 위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회복할 때 쌀 소비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쌀값 안정으로 이어진다. 이는 능업인 소득 증가와 능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로 연결되며 나아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능업 인구 유입의 토대가 된다. 쌀 소비의 해법은 밥그릇이 아니라 식탁에 있다. 가족이 함께하는 아침 식탁 위에서 우리의 건강과 관계 그리고 국가 기반 산업인 능업의 미래가 함께 자라고 있다.

이제 쌀 소비 정책 역시 '얼마나 먹을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아침 식사 문화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론 쌀값 안정을 위한 각종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쌀 소비

社說

나눔의 도시 '광주 DNA' 보여준 자영업자들

양국, 미용실, 학원, 식당, 카센터 등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점포에 '착한가게'라는 명패를 붙여주는 사업은 2008년 처음 시작됐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매출의 일정액(매달 최소 3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가게에 명패를 달아주는 사업인데 폐업률을 보면 광주 경기가 더 안 좋은데도 자영업자들은 자신보다 더 힘든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눔을 실천했다니 '나눔의 도시' 광주라는 DNA를 여실히 보여준 것 같아 흐뭇하다.

물론 기부자가 낸 성금이 동네 어려운 이웃에게 쓰이도록 구조를 만든 광주사랑의 열매와 기부금을 쿠폰으로 발행해 취약 계층에게 지급하고 이 쿠폰을 다시 지역 착한가게에서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만든 광주 서구와 같은 기관 단체의 노력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광주의 공동체 정신 가운데 하나는 나눔이다. 나눔은 이웃이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했다. 유난히 주운 이번 겨울 광주 자영업자들의 나눔이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자신들이 힘든데도 내미는 나눔이 더 가치가 있다.

'더 그레이트 광주' 쇼핑몰 넘어 랜드마크로

신세계백화점이 광천버스터미널과 광주신세계백화점 부지에 추진하는 복합쇼핑몰인 '더 그레이트 광주'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신세계 측이 처음 복합쇼핑몰 카드를 꺼낸지 1년 6개월만에 광주시와 협상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당초보다 공공 기여금과 주거시설을 늘리는 선에서 양측이 합의한 결과다.

신세계는 총 3조원을 투자해 2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1단계는 2028년까지 기존 백화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신관을 짓는 것으로 쇼핑몰 가능을 확장하게 된다.

2단계는 2033년까지 터미널 부지에 호텔과 공연장, 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더 그레이트 광주'가 단순히 복합쇼핑몰을 넘어 광주의 랜드마크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궤도에 오른 이 사업이 더 의미있는 이유는 광주 복합쇼핑몰의 물고기 역사가

요즘 광복상권은 IMF 때나 코로나19 시절보다 더 침체돼 있다. 대기업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광복상권으로 온기가 번지지 않기는 전국이 마찬가지이지만 폐업률을 보면 광주 경기가 더 안 좋은데도 자영업자들은 자신보다 더 힘든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눔을 실천했다니 '나눔의 도시' 광주라는 DNA를 여실히 보여준 것 같아 흐뭇하다.

물론 기부자가 낸 성금이 동네 어려운 이웃에게 쓰이도록 구조를 만든 광주사랑의 열매와 기부금을 쿠폰으로 발행해 취약 계층에게 지급하고 이 쿠폰을 다시 지역 착한가게에서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만든 광주 서구와 같은 기관 단체의 노력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광주의 공동체 정신 가운데 하나는 나눔이다. 나눔은 이웃이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했다. 유난히 주운 이번 겨울 광주 자영업자들의 나눔이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자신들이 힘든데도 내미는 나눔이 더 가치가 있다.

無等鼓

충남 부여 관북리 일대는 백제 사비시대 왕궁지로 추정되는 장소다. 1982년부터 15차례 발굴에서 대형 전각건물과 수로, 도로시설, 대규모 대지 등이 확인됐다. 최근 16차 발굴에서는 인사 기록, 국가재정, 관동·관직이 적힌 목간(木簡) 등 329점이 쌓아져 나왔다. 발굴 사상 단일 유적에서

발굴된 최대량 목간이지만 정작 가장 주목 받은 유물은 한 점이었다. 궁중 관악기인 흥적(橫笛, 가로 피리)으로, 삼국시대를 통하여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실물 관악기다. 전존 길이 22.4cm에

이르는 몸체는 대나무 재질이고 구멍이 네 개 일렬로 뚫려 있어 현재 연주되는 소금과 비슷한 악기로 판명됐다.

피리는 조당(朝堂) 건물로 판명된 건물지 인근 사직각형 구덩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조당은 왕과 신하가 국정을 논의하고 조회와 의례를 행했던 공간이다. 사직각형 구덩이는 조당의 부속시설인 화장실로 추정된다. 구덩이가 유기물에서 기생충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흥적에서 부수뜨린 흥적이 발견된 정황으로 미뤄 화장실에 폐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피리는 1500년 전 제작

했거나 연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간에 남은 일부 글씨를 판독한 결과 '경신년(庚申年·540년)', '제해년(癸亥年·543년)'으로 확인됐다. 백제가 웅진(공주)에서 사비(부여)로 천도(538년)한 직후에 해당한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유적은 고대 음악의 보고(寶庫)임에도 잊혀져 가고 있다. 1997년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진 협악기인 흥적(橫笛, 가로 피리)으로, 삼국시대를 통하여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실물 관악기다. 전존 길이 22.4cm에

잇따라 나오는 등 가야 금 시원에 대한 연구의 길이 트였다. 절반 가량

만 남은 협악기는 10개 줄이 달린 '10현금'으로 복원됐다. 찰음악기도 발굴됐는데, 나무에 빨판 같은 돌기를 새긴 후 마찰봉을 문질러 소리를 내는 일종의 타악기다. 현재까지 통령체의 목재 가죽북을 비롯해 청동방울 등 모두 음악과 관련한 유물 5점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 발굴된 흥적은 비록 해석하기 어렵지만, 유물 5점이 모두 음악과 관련한 유물로 추정된다. 이번에 발굴된 흥적은 조당의 부속시설인 화장실로 추정된다. 구덩이가 유기물에서 기생충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흥적에서 부수뜨린 흥적이 발견된 정황으로 미뤄 화장실에 폐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피리는 1500년 전 제작

/윤영기 정치·경제담당 에디터 penfoot@

光州日報

회장